

일본 정보은행 사업의 인증 현황 및 기타 추진 사례

격주간 보고서 2020년 11월 4주

일본 정보은행 사업의 인증 현황 및 기타 추진 사례

< 목 차 >

- 1. 개요 및 추진 현황
- 2. 정보은행 인증제도 및 현황
- 3. 기타 유사 서비스 추진 사례
- 4. 시사점

1. 개요 및 추진 현황

(1) 개요

- ▶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통한 산업 활성화 및 정보주체의 권익 강화를 위해 정보이용신용은행(情報利用信用銀行制度, 이하 정보은행) 사업을 추진¹해오고 있으며², 최근 민간 사업자에 의한 정보은행의 상용 서비스 계획이 가시화
 - 정보은행이란 정보주체 개인과의 계약에 의거해 개인 데이터를 관리하고, 개인의 지시 또는 미리 지정한 조건에 따라 개인을 대신하여 타당성 판단 후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모델³

1 일본 정부 산하의 IT종합전략본부는 '세계 최첨단 IT 국가 창조 선언'을 개정하고, 2016년 IT 활용 추진을 위한 3개 중점항목 ①국가지방의 IT화업무 개혁의 추진 ②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데이터 유통과 활용을 위한 환경 정비 ③초저출산 고령사회의 과제 해결을 발표하였으며, 데이터 유통의 개인 참여 및 건전한 데이터 시장 형성, 정보은행 구상 등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데이터 유통과 활용을 위한 환경 정비 지원 중

2 정보은행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2018년 해외개인정보보호 동향」 2월 월간, 6월 2주 보고서 참조

3 <http://tech.nikkeibp.co.jp/dm/atcl/word/15/327920/032300020/?ST=health>

참고: 개인 데이터 저장소(Personal Data Store, PDS)는 이름 그대로 개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저장·관리·배포할 수 있는 인프라와 기술적 시스템, 혹은 그러한 서비스를 의미

2020년 11월 4주

- 정보주체의 개인 데이터를 계약에 따라 정보은행이 관리하며, 미리 지정된 조건에 기반하여 개인을 대신하여 해당 개인정보 유통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데이터를 제3자 제공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식 적용
- 데이터를 제공받은 정보은행은 정보주체의 동의에 근거하여 데이터 이용을 희망하는 제3자 제공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데이터를 제공받은 제3자 제공 사업자로부터 정보주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데이터 이용 대가 혹은 편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익 환원

그림_1 일본 정보은행 생태계의 개요



자료: 総務省(2020.8)

(2) 추진현황

▶ 일본의 정보은행 사업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진행 중

- 일본 정부는 정보은행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2014년 ‘정보은행 컨소시엄(Information Bank Consortium)’을 설립한 후 정보은행과 관련한 실증 실험 진행
 - 후지쯔(富士通株式会社, Fujitsu)와 금융그룹인 이온(AEON) 등은 2017년 8월 중순부터 약 2개월간 개인 데이터 저장소(PDS)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기반 ‘FUJITSU Cloud Service K5 Personium Service’를 ‘정보은행’ 실증 실험으로 진행
 - 정보주체는 정보은행에 개인 데이터를 예약하고 대가로 코인을 받으며, 기업은 정보은행이 제공한 개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 개발

- 일본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은 2017년 11월 ~ 2018년 4월까지 총 6회에 걸친 논의를 바탕으로, 2018년 6월에는 정보은행 사업자의 인증 기준 등을 정리한 "정보은행의 사업자 인증에 관한 지침 초안(情報信託機能の認定に係る指針)"과 정보은행의 사업자 인증에 관한 지침 1.0버전(情報信託機能の認定に係る指針ver1.0) 공개
 - 정보은행 운영자의 신뢰성이 중요한 만큼 민간단체 등에 의한 인증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정한 신뢰성을 충족시키는 주체를 인증하기 위한 것
- 2019년 10월에는 정보은행 인증제도의 특성에 관한 검토 회의를 거쳐 "정보은행의 사업자 인증에 관한 지침 2.0 버전(情報信託機能の認定に係る指針ver2.0) 발표
 - 정보은행의 사업자 인증에 관한 지침 1.0버전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내용 포함

2. 정보은행 인증제도 및 현황

- 일본 IT단체연맹은 2018년 12월부터 정보은행 인증제도 실시
 - 일본 IT단체연맹의 정보은행 공인인증은 ①정보은행 사업이 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인증'과 ②정보은행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 중 운영계획 검토 결과 시범서비스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P인증'으로 구분하여 인증 부여
 -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2년마다 갱신 심사를 거쳐 인증 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인증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유지
 - 정보 신탁 기능 인증 체계에 대한 초기 검토단계부터 정보은행 인증은 어디까지나 임의적인 것이며, 인증을 받는 것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진행
- 2020년 4월 기준⁴ 인증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일반인증 사업자인 DataSign과 △P인증 사업자인 미츠이 스미토모 신탁은행 ((株式会社三井住友銀行,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펠리카 포켓 마케팅(FeliCa Pocket Marketing, FPM), J.Score, 중부 전력(中部電力株式会社) 총 5개 사업자가 인증을 획득한 상태

4 2020년 11월 20일 접속한 일본IT단체연맹 홈페이지에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표시, 이후의 추가 인증은 없었던 것으로 추측 (<https://www.tpdms.jp/certified/index.html>)

2020년 11월 4주

- 인증을 받은 5개 사업 내용은 ①패스핏(paspit) 서비스 (DataSign), ②데이터 신탁 서비스(미츠이 스미토모 신탁은행) ③지역 경제 활성화 서비스(펠리카 포켓 마케팅) ④신용정보 공유 서비스(J.Score) ⑤지역 기반 정보은행 서비스(중부 전력)임

표_1 일본 IT단체연맹의 정보은행 인증 사업자 및 사업 현황

인증유형	사업자	인증대상 사업	최초 인증일/ (유효기간)
일반인증	DataSign	★ 패스핏(pasp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데이터저장소(PDS)에서 ID와 비밀번호는 물론 다양한 웹사이트에 산재된 개인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실시 데이터유통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함으로써 데이터 이용 흐름과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 내용을 투명하게 파악 	2020.2.26. (20.3.2-22.3.1)
P인증	미츠이 스미토모 신탁은행 (三井住友信託銀行株式会社)	★ 데이터 신탁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사카 지역의 의료기관으로부터 개인의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여 다른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여 지역 단위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 이를 위해 10여 개의 기업 건강검진 데이터 관리 회사 등과 데이터 제공 계약 체결 	2019.6.21. (19.7.8-21.7.7)
	펠리카 포켓 마케팅 (フェリカポケットマーケティング株式会社)	★ 지역경제 활성화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의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를 앱에 등록하고 그 대가로 쿠폰이나 정보를 수취 지역사회의 업체와 광고주는 해당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타겟 마케팅을 진행하고 그 대가로 쿠폰 등을 제공 	2019.6.21. (19.7.7-21.7.6)
	J.Score (株式会社J.Score)	★ 신용정보 공유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개인 데이터를 조합한 후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개인의 신용정보를 공유한 정보주체가 그 대가로 기업 등으로부터 특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 	2019.12.24 (20.1.24-21.1.23)
	중부 전력 (中部電力株式会社)	★ 지역기반 정보은행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주체가 앱을 통해 자신의 개인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역 기반의 정보은행에 위임하고 그 대가로 데이터 이용 기업으로부터 쿠폰과 포인트 등의 특전을 제공받는 서비스 2020년 3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진행하고 이후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 	2020.2.4. (20.2.7-22.2.6)

출처: 일본IT단체연맹 홈페이지⁵



5 <https://www.tpdms.jp/certified/index.html>

3. 기타 유사 서비스 추진 사례

- ▶ 일본 총무성의 정보은행 논의가 진행되던 시점부터 이미 민간 사업자들의 유사 시범서비스 등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일본 IT단체연맹의 인증 획득 여부와 무관하게 민간에서 정보은행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 계획을 발표하는 사례 존재
 - 종합 광고 전문기업 덴츠(Dentsu)의 자회사인 My data Intelligence의 'MEY'의 사례가 대표적이며, 미쓰비시 UFJ(Mitsubishi UFJ) 신탁은행은 개인으로부터 이름이나 위치 정보, 자산 등의 데이터를 위탁받은 후 제3자 제공 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 'Dprime'⁶ 추진 예정⁷

(1) My data Intelligence의 MEY

- ▶ 일본의 종합 광고 전문기업 덴츠의 자회사인 My data Intelligence는 2019년 7월 스마트폰 앱 서비스 'MEY' 운영 중
 - MEY는 개인의 정보들을 한곳에서 통합 관리하고 기업에게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MEY를 이용하는 개인이 스마트폰 앱에 등록하면,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 데이터를 활용하기 원하는 기업으로부터 앱을 통해 사용승인 제안을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
 - MEY의 신규 회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본 정보(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비밀번호)를 제공한 후 가입해야 하며 데이터 거래는 'MEY 앱'을 통해서만 가능
 - MEY 이용자는 데이터 이용 목적이나 데이터 이용 대가 등 기업이 제시하는 개인정보 활용 조건 확인하고 원하는 기업에게만 자신의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동의할 수 있으며, 기존의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기업 등이 제시하는 설문조사에 응하는 방식으로 참여
 - 정보주체에게는 개인 데이터를 제공한 대가로 각종 포인트, 전자 화폐, 유익한 정보 및 콘텐츠 등을 받을 수 있는 혜택 제공
 - MEY 앱을 통해 앞서 데이터 이용을 허락한 사안에 대해 정보주체가 추후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의 ID와 비밀번호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개인 데이터를 직접 관리 및 운용할 수 있는 툴(tools) 제공

6 2021년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 발표

7 My data Intelligence의 'MEY'와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의 'Dprime'이 일본 IT단체연맹의 인증을 진행 중인지는 11월 20일 기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없었음. 인증을 받지 않아 유사 서비스로 서술하였으나, 정보은행 제도에 부합하는 모델인지에 대해서는 데이터 관리 방법이나 표준화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일본 내에 없는 상태임.

2020년 11월 4주

- MEY 앱에서 개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는 암호화하여 보관 및 저장되며, 정보주체 외에는 개인 데이터가 노출되지 않도록 장치의 잠금 기능 제공

(2)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의 'Dprime' 서비스 계획

- ▶ 미쓰비시 UFJ (Mitsubishi UFJ) 신탁은행(이하, 미쓰비시 은행)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정보주체로부터 취미와 자산 등 각종 데이터를 수집한 후, 여행 회사나 식품 회사 등에서 데이터 이용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요청 기업에 제공하는 'Dprime'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
 - 'Dprime' 서비스는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이 정보를 제공한 주체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미쓰비시 은행은 이러한 기업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 채택
 - 기업에게 제공되는 데이터는 △설문조사 등의 형태로 정보주체 스스로가 입력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정보주체가 이용하는 서비스의 운영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도 가능
 - 미쓰비시 은행은 2021년 약 20개 사를 대상으로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필두로 3~4년 후에는 데이터 수취 기업들 약 200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데이터 제공자 측에서 'Dprime' 서비스 앱을 다운로드 받는 건수는 2021년 말 40만 건을 거쳐 2023년 말까지 120만 건을 달성한다는 목표 제시

4. 시사점

- ▶ 정보은행은 정보의 소유권과 통제권의 초점을 정보주체 개인을 중심으로 재조정하고, 개인에게 개인정보 통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보시장의 균형점을 회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 사업임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판단을 개개인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위탁함으로써 △개인이 정보제공과 관련한 사항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서도 데이터 활용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개인이 자신의 개인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장벽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
 - 개인 데이터를 포함하여 다종다양한 대량의 데이터를 원활하게 유통하기 위해 개인의 관여

하에 데이터 유통 및 활용을 진행하는 방식으로서 정보은행 사업에 대한 평가는 시기상조이지만 상용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하고 최근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민간업체의 서비스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할 전망

- 일본 IT단체연맹의 인증 실적 저조, 정보은행 운영을 위한 필수 인증의 의무 부재 등에 따라 일본 정부는 내각부 산하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SIP)을 가동하여 구체적인 데이터 취급 규정 통일안을 마련할 계획
- 무엇보다 정보은행이 데이터 유통 및 활용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경제성과 수익성이 확보되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 필요
- 일본 내 정보은행의 '개념' 자체가 아직 널리 수용되지 않은 상태에서⁸ 기업이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부감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보장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Reference

1. 「情報銀行」は日本の挽回策となるのか, NLI Research Institute, 2020.07.16.
2. '情報銀行の大きなうねり、起爆剤となる企業は現れるのか', BayCurrent Consulting, 2020.02.05.
3. '情報銀行の大きなうねり、起爆剤となる企業は現れるのか', BayCurrent Consulting, 2020.02.05.
4. 「情報銀行」来春にも まず20社に提供 三菱UFJ信託, Digital Asahi, 2020.08.04.
5. '日本IT団体連盟がScoreの情報提供サービスを日本で2番目の「情報銀行」として認定', Dime, 2020.01.16
6. '令和2年版 情報通信白書', 総務省, 2020.08.05
7. '我が国におけるデータ活用に関する意識調査', 内閣官房, 2019.02.04

8 2019년 6월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계획 실행위원회 데이터 유통·활용 워킹그룹 제2차 정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정보은행의 개념에 대한 인지도는 10% 미만을 기록

2020년 11월 4주



발행일 2020년 11월

발행 및 편집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 개인정보정책기획팀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빛가람동 (301-2) Tel 1433-25

- ▶ 본 동향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해외개인정보보호동향보고서의 내용은 무단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